

여수에 맛·멋·얼 체험 '3색 열차' 뜯다

오늘부터 10월까지 무박 2일 KTX 10회 운행

市, 정원박람회 연계 1000만 관광객 유치 박차

여수의 맛과 멋, 얼 등 3색(色)을 보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있는 특별 관광열차가 운영된다.

여수시는 3월부터 10월까지 'Oh Yeosu 3색 특별 관광열차'가 무박 2 일 일정으로 총10회(3월~5회, 4월~5월~9월~각1회, 10월~2회) 운영된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서바이벌 사격 체험

육군 제31사단 광양대대는 지난 28일 부대 인근 마을주민 80여명을 초청, '민군 화합단결의 날' 행사를 가졌다. 부대를 방문한 마을 주민들이 장비 관람후 서바이벌 사격을 체험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순천시, '정책실명제' 등록 대상 160건 확정

순천시가 주요 정책에 대한 업무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책실명제 등록 대상 160건을 확정, 공표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내용은

5억원 이상 건설사업 110건과 5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 및 시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50건이다.

정책실명제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

시는 여수의 맛과 멋, 얼 등 3색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관광 상품으로 관광객 1000만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상품과 일정은 ▲오동도 빙꽃 성지순례열차(3.1/ 용산) ▲여수 오동도 기차여행(3.1/ 주덕) ▲여수 거문도·백도 관광열차(3.5~3.6/ 춘천) ▲여수 금오도 바랑길 기차여행(3.8~3.9/ 신란리) ▲향일암·오동도 기차여행(3.16~3.17/ 서울) ▲향일암·오동도 기차여행(4월중 / 구미)

▲여수 오동도·향일암 기차여행(5. 16~5.17/ 용산) ▲사도 기차여행(9 월중/ 용산) ▲금오도 바랑길 기차여행(10월중/ 용산) ▲여수 오동도·향일암 기차여행(10월중/ 용산) 등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들에게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함께 세계 4대 미항 여수를 알차게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관광과(061-690-2862)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와 'Oh Yeosu 3색 특별 관광열차' 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는 특별 관광열차 10회(4000명)를 운영하고 시는 1회당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전세버스 임차료 및 이벤트 행사 운영비를 지급키로 했다.

/여수=김경희기자 chkim@

노후화된 보성읍사무소

30억 들여 새로 짓는다

보성군, 10월말 완공

보성읍이 노후 된 보성읍사무소를 철거하고 지난해 12월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작품으로 읍사무소를 새롭게 신축한다.(조길도)

보성읍사무소는 1963년 건립된 노후 건물로, 우기 시 빗물이 쌓이는 등 많은 불편과 회의실, 사무 공간 등이 좁아 교육 등 여러 가지 주민 행사를 치르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보성군은 30억원을 들여 깨끗한 환경에서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능성을 갖춘 현대적인 시설물 신축을 위해 이달중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10월말 준공 예정인 보성읍 신청사는 현 청사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378㎡ 규모로 회의실, 사무실, 민원 상담실, 농민상담소 등을 갖추게 된다.

특히 264㎡ 면적의 다목적 회의실



은 각종 교육과 회의는 물론 면민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보성군은 읍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라 군 보건소에 임시사무소를 마련하고 3월 11일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道, 순천정원박람회 식중독 예방

식음료 안전관리대책협의회 개최

전남도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최근 순천시문화건강센터 대회의실에서 '식음료 안전관리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시진)

이날 협의회에는 외식업체회, 교육청, 도로공사, 박람회 조직위원회 등 8개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8개 기관들은 박람회장 관광객을 위한 식음료 안전관리 운영계획 수립과 함께 박람회 지원기관의 역할과 임무, 박람회장내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 배치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박람회장내 식음료 종사자 위생교육, 고속도로·국도·KTX역 등 휴게소 식중독 예방관리, 식음료 안전관리 자문과 행정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장문성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전남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보다 안전하고衛생적인 식품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식음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순천정원박람회-日 고베비엔날레 상호 교류전

오는 10월 1일~12월 1일

고베비엔날레측은 그린(Green)을 테마로 꽃으로 만든 조형물을 이달 말까지 정원박람회장 실내·외 전시관에 설치할 계획이다.

고베비엔날레측은 또한 교류 전시회를 위해 동경예술대학 미술학부 강

사이며 2011고베비엔날레 크린아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소노베 히데노리 씨를 파견할 계획으로, 일본 현대미술의 작품 양식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단신

서울~전주 외국인 전용 관광버스 운영

전북도가 외국인을 대내 관광지에 유치하고자 외국인 전용 관광버스를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로 서울 광화문과 전주 리버리아 텔을 잇는 코스다. 40인승 리무진 대형버스로 오전 8시 광화문을 출발해 전주 한옥마을로 오고 오후 5시에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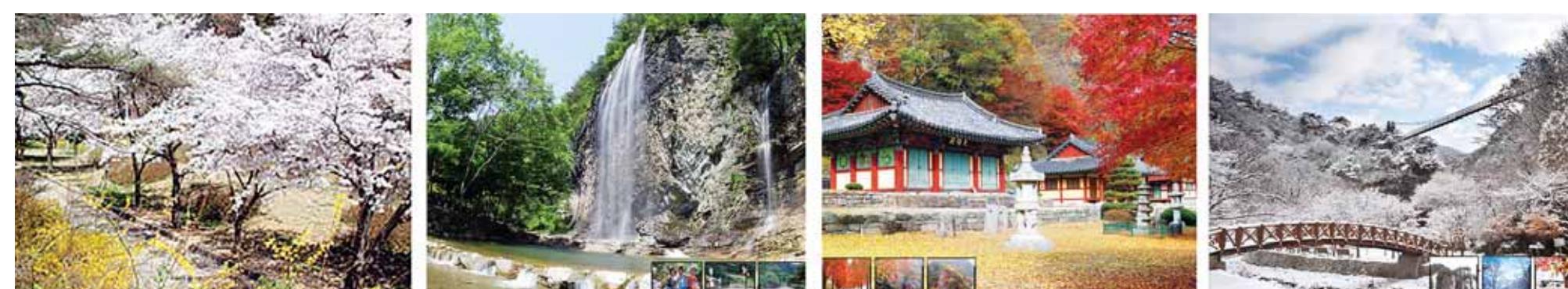
울로 돌아간다.

또 버스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통역가이드가 동승해 전북의 관광지를 소개한다.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운행되는 이 버스의 운임은 무료이며, 도청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전북



강천산의 4계절 모습. 왼쪽부터 벚꽃터널과 병풍폭포, 강천사의 단풍, 구름다리의 설경.

정읍시, 도내 첫 고교까지 무상급식

고교 13곳 등 67개교에 올 30억여원 지원키로

정읍시가 전북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시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정읍시는 올해 30억5600여만원을 확보해 도시지역 고교까지 무상급식

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지역 35개 초등학교와 19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등 67개교 1만3164명에게 무상급식비로 27억430만원을 지원한다.

이로써 정읍시는 초중교에 이어 도시지역 고교까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넓혔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학교급식 친환경 캠페인을 통해 3억5100여만원을 지원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농촌지역 5개

고교는 2009년부터 전면 지원했으나 도시지역 8개 고교는 올해 처음으로 25%를 지원한다"며 "앞으로 도시의 모든 고교가 혜택을 받도록 보편적 교육복지율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강천산군립공원

입장료 인상 추진

순창군이 강천산군립공원의 입장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강천산은 2011년부터 2년 연속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의 입장으로 계곡이 오염되면서 입장료 인상을 검토해 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순창군은 공원 입장료를 어른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초·중·고생과 전·의

경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1000원씩 인상하는 안

을 가지고 군립공원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해 군의회 의결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관리사무소가 없어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토작품 판매장을 리모델링해 새로운 공원 관리사무소로 이용하기로 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입장료 인상분은 강천산 유지관리를 위해 재투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창=이동희기자 dhee@

남원시, 취약계층 여행상품 구입비 지원

남원시가 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행이용권' 사업을 벌인다.

개별 이용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 우선 돌봄 차상위계층, 단체 이용권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되면 여행사에서 국내여행상품 구매 시 1인당 15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개별 여행이용권은 동반가족 1인과 함께 신청하며 30만원까지 지원된다. 문의는 남원시 문화관광과(063-620-6163)로 하면 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고창 심원면 양식장 갯벌 복원사업 연내 마무리

전북도와 국토해양부는 2010년부터 4년간 71억원을 들여 고창군 심원면 일대 양식장을 갯벌로 복원하고 염습지, 염생식물지, 갈대 군락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이 끝나면 총 67.5ha의 갯벌이 복원된다. 심원면 일대는 2007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10년 세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고창 람사르 습지는 곱소만에 위치한 반 폐쇄적인 내만형갯벌로 펄갯벌, 흔합갯벌, 모래갯벌이 조화롭게 분포돼 다양한 저서생물과 염생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흰뺨매어, 검은머리풀매어 등 전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도교육청, 장애인 17명 학교 '행정실무사' 채용

전북도교육청은 장애인 17명을 전북도내 일선 학교의 보조업무를 맡는 '행정실무사'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입기는 2년으로 2년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도교육청은 군산명화학교와 다솜학교에 각 3명, 전주은화학교 2명, 전

주선화학교 3명, 한울학교 1명, 산서고 1명, 익산교육지원청 3명, 원주교육지원청 1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주로 도서관 사서 보조와 급식실, 학교청소, 특수교육, 통학 보조 등의 일을하게 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고창 복분자 이용 신제품 '베리쥬스' 개발



(재)고창복분자연구소(소장 정종태)가 복분자를 재료로 이어 뷔리티 유용 베리쥬스(사진)를 개발 했다. 고창복분자연구소는 베리쥬스 개발과 함께 '복분자'를 포함하는 베리즙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식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전북도의 '2012 고부가 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사업' 지원을 받아 베리팜 영농조합법인과 공동으로 이룬 것이다. '미인 베리즙'으로 이를 불여진 신제품은 복분자와 블랙초코베리, 오디를 혼합해 만든 탓에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피부건강에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산림피해 최소화 사방사업 편다

道 산림환경研, 이달부터 8개 사업 233억 투입